

채도와 명도 선연한 시의 빛깔과 색깔

색에 나타난 시인들의 내면풍경

시인은 색채어를 즐겨 쓴다. 좀더 명징한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색을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또한 같은 색일지라도 시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강렬한 원색에서 파스텔 톤까지

우리 시인들 가운데 명도와 채도가 선명한 시를 써온 시인들이 있다. 그들의 시는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원초적이고 가장 순수한 빛깔로 우리에게 강렬한 시적 체험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시인이 서정주와 김수영이다. 서정주의 시편들은 화려한 원색이 돋보인다.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화사》)과 “꽃처럼 붉은 울음”(《문둥이》)에서 원시적이고 강한 색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김수영의 시 <눈>이 보여주는 흰색 역시 눈부시고 강렬하다.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고 말하며 타협과 굴복을 용납하지 않는 이 시인의 외침 앞에, 저항과 자유의 순수한 흰색 앞에 다만 눈이 아릴 뿐이다.

정현종과 장석남의 시는 투명하고 무욕한 색감이 도드라진다. 이들의 시는 독자에게 밝은 색채감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색이 사물이 그대로 내비칠 정도로 투명하거나, 또는 사물과 존재의 뒷편에 다만 배경으로서 색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시 <이 귀신아>에서 나무들은 다만 “생각 없이 푸르다. 또한 그는 색에 어떤 이데올로기도 투영시키지 않고 다만 색 그 자체로 보라고 제안한다. “검거나 회거나 흑백 반반이거나 / 다른 피부색 다른 생김새를 보는 건 / 얼마나 신성한지요”(《다른나라 사람》)가 그 한 예다. 장석남의 시에 나타나는 색은 ‘어여쁜 색’이다. “감들이 빨간 빛들을 해가지고서는” 놓여 있고, 그는 “살구를 따서 쥐고는 그 이쁘디이쁜 빛깔을 잠시 바라보며” 지난날을 돌아보기도 한다.

한편, 조지훈과 김광균은 은은하고 누그러진 색으로 감싸여 있어, 선명하거나 강렬한 느낌 대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한다. <승무>에 나타나는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이나 “복사꽃 고운 뺨”에서 느낄 수 있듯 조지훈 시의 색은 “얇은 사”에 비치는 은은한 흰색이며 뺨에 잔잔히 어리는 붉은 색이다. 김광균의 시 <외인촌>은 “하

이안 모색(暮色) 속에 피어 있는 /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

파아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馬車)가 한 대 잠기어 가고”에서처럼 한 색깔이 다른 색깔로 천천히 스며든다.

무채색으로 가득한 시인의 우울한 내면풍경

죽음과 소멸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시에는 무채색의 황폐한 색깔이 감돌고 있다. 남진우, 기형도, 허수경 등의 시는 명도와 채도가 완전히 제거된, 우울하고 불길한 검은색 또는 잿빛으로 가득한 풍경이다. 이들의 시에서 색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즉 퇴색하는 과정에 있거나 퇴색된 채로 존재한다. 가령 남진우의 <겨울 저녁의 시>에서 “지평선은 푸르름을 지우며 조금씩 가라앉”거나 “두 손엔 / 한 움큼의 재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형도는 <오래 된 서적>에서 “나의 영혼은 /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또한 이들은 시에 비정상적이고 뒤틀려 있는 색감을 사용함으로 써 세계의 부조리함과 절망을 표현한다. 기형도의 시 <안개>에서 나무들은 초록이 아닌 “검고 무뚝뚝”하게 서 있으며, 태양마저 “노랗고 딱딱하”게 걸려 있다. 남진우는 <초록 달팽이의 길>에서 붉은 벽돌담에 무성한 담쟁이 넝쿨을 “초록빛 암세포”라고 규정한다. 허수경 시의 노란색, 분홍색 등은 마치 ‘상여’에 알록달록하게 장식된 꽃처럼 “서럽고 막막한” 느낌을 내비치고 있다.

황톳빛 서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이나 질곡을 질박하게 그린 시 앞에 대개 이 말이 붙는다. 이럴 때 황톳빛은 찬란한 느낌의 노란색 계열이 아닌, 검은색이나 붉은색이 혼합돼 서러운 정조를 전해준다. 김지하의 시 <황톳길>은 “황톳길에 선연한 / 핏자욱 핏자욱 따라 / 나는 간다 애비야” “울타리 탕자도 서슬 푸른 속이파리 / 뺨시디뺨신 성장처럼 억세인 / 황토에 대낮 빛나던 그날”처럼 온통 황톳빛으로 물들어 있다. 한하운도 <전라도 길—소록도로 가는 길>에서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 이더라”면서 서러운 민중의 마음을 노래했다. — 최갑수기자

